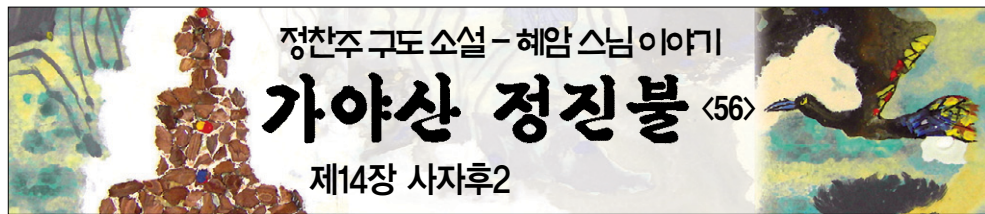


“마음 잘 쓰는 놈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단 말이여”



해암은 선방을 개원하는 스님들을 누구보다도 좋아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새로 생긴 선방을 찾아가 격려하곤 했다.

해국이 제주도에 남국선원을 개원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입적하기 얼마 전에 상좌들을 데리고 간 일도 있었다.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남국선원은 서귀포시 공동묘지 바로 위에 있었다. 해국이 남국선원을 짓게 된 것은 성철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해국수좌, 고향이 제주도지.”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는 절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다. 제주도에는 절이 백 개나 됩니다.”
“선방이 없는 절이 절이야. 네가 선방 하나 지어라.”

결국 해국은 제주도 일주도로를 돌면서 팔리고 내놓은 지 2년 된 목장을 사서 선방을 지었다. 해국은 선방을 두 곳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하나는 안개가 있는 대중선방이고, 또 하나는 한번 들어가면 일정기간 나올 수 없는 무문관이였다. 무문관은 감옥의 독방 같은 곳으로 하루 한 끼만 출입구를 통해 들여보냈다. 식판이 나오지 않으면 수행자가 삼매에 들었거나 그의 육신에 이상이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남국선원을 찾은 해암이 해국에게 말했다.
“해국 수좌, 나 선방 좀 봐야겠어. 제주도에는 선방이 남국선원 하나뿐이니까. 계속 운영을 잘해나가야지. 선방이 없으면 절은 안 되는 거야. 서로를 힘을 모아 선방이 커나기도 노력들 해야 돼. 그러니 내가

테는 당할 재간이 없단 말이여. 알아들겠는가. 그러면 마음을 잘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고’ 하고 참선하란 말이여. ‘이렇고’ 모르는 그놈이 곧 그 자리여. 참구하고 참구해서 무념위종(無念爲宗)이 되어야 해. 자식새끼들 그거 다 원수가 만난거여.”

해암은 법문을 시작하면 끝이 없었다. 시자 손에 부촉해서 다닐 기력인데 법문할 때만은 카랑카랑 힘이 넘쳤다. 이해관계를 따지는 세상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법문이었다. 몸을 아낀다거나 체면을 생각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재가신도와 초보자들의 선방인 원당암 달마선원에서 도 마친가지였다. 종정의 신분을 잠시 잊고 천진도인의 모습으로 설했다. 보살이나 거사를 상대할 때는 그들의 근기에 맞게 문어체를 구사하지 않고 구어체 법문을 했다.

<처음부터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가 자라 가지고 어른이 되는 것 같이 눈에 안 보이는 공부도 자꾸 자라나는 것이지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하나 똑같이 생각하지만 이 공부는 자꾸 큼니다. 오늘 할 때 다르고 내일 할 때 달라요.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면 채소가 자라는 것같이, 눈이 못쳐지는 것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잘 모르는데 한 달 지나고 일 년 지나고 하면은 이 공부가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 말다 하니, 안한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지만은 공부가 자라지를 못해

종자를 땅에다 심었을 때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늘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고, 일주일 지나가면 땅을 뚫고 일어나 썩어 트지 않습니까.

처사님들을 두고 보자면, 우리가 수업을 깔지만 이 눈으로 다른 사람 수업을 자라는 것은 볼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자라지요. 우리 ‘고기 눈’이 어리석어서 못 볼 따름이지 자꾸 수업이 이렇게 자라지요.

이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미없는 데다가, 알래야 알 수 없는 데다 대고 자꾸 글을 뚫고 나가시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겨나오. 이 공부를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저절로 무슨 조화가 생겨나오.

오늘도 공부를 쌓아 놓고, 내일도 쌓아 놓고 그러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같이, 내일 새벽이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불을 안 할라고 해도 성불이 저절로 돼요.>

그래도 공부가 안 된다고 달마선원에 입실한 재가 불자들이 염화실로 찾아와 하소연해 오면 해암은 또 다시 어른이 아이 손에 구슬을 쥐어주듯 쉬운 말로 하나하나 그 까닭을 열거해 가며 법문했다.

<이 공부가 안 되는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선지식을 못 만나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나고 죽는 데에 무서운 생각이 없으니까 공부가 안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간의 반연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도를 닦는 데 선지식의 인도가 제일 중요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혼자서 도를 닦는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간혹 혼자서 도를 닦아 깨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전생부터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라 닦아온 공덕이 있는 사람이기 처음부터 자기 혼자서 깨친 사람은 아니지요.

두 번째는, 나고 죽는 생각에 무서운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사형선고가 내릴지도 모르는데, 염라대왕에게 불려가 사형집행이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데 미국이나 소련 구경 간다고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보살이 지금도 여기 안 온 모양인데 ‘빛만 갠아 놓고는, 내년부터는 여기 안 빠지고 꼭 다니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일 년 동안 살 자신 있소.’ 그러니까 그냥 다 웃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참 불쌍하고 명청해요. 나고 죽는 것은 한 시간이 그만두고 눈 깜짝할 새의 자유도 없는 데, 막 뒤로 미루면서 몇 년이나 살 것같이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부처님 전 분 이 나와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간의 반연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못해요. 세간 일에 욕심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이지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일, 정치하는 일, 농사짓는 일, 살림하는 일이겠는데, 그런 세간일은 그만 두고라도 몸뚱이도둑놈 사랑하고, 이 몸뚱이도둑놈 종노릇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를 떨고 이놈 먹어 살리다 보면 남는 거 뭐가 있어요. 북방산천에 송장을 밀어 넣으면 결국에 가서는 풀이 되고, 화장터에 가서 포실라 버리면 재 한 줌이 되는데 그 재 한 줌 어디다 써먹을라고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허망한 세상이지만, 이 몸이 있는 이상 세간 일도 안 돌아올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림: 최본정

“ 뭐니 뭐니해도 참선밖에 없어 참선이 제일이여 ”

아무리 이 세간일이 꿈속 일이라고 하지만, 잊어버려 좋은 꿈을 꿔더니 기분 좋다고 하듯이 허망한 꿈이지만 좋고 나쁜 차별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몸뚱이 따를 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 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등지고 도둑놈만 믿고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편지를 보내온 보살에게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간절한 답장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참선공부를 시키어 보살의 본래면목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속에서는 바로 오늘이 추서 명절이라고 예를 찾되 사람에 따라서는 슬픈 사람 혹은 즐거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한 정정자, 도살장에 나가는 소와 같이 슬픔의 길에 더 도착하였을 뿐이니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리고 자녀들 너무 걱정이 된다 하니 말씀드립니다. 오직 사람마다 제 복과 제 명을 타고 왔으며 이 세상에서 지혜와 복을 닦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니 걱정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 저녁 쉬어가는 나그네로서 부모님의 은혜가 깊어오 마친내 이별이 있고 처자권속의

의리가 중하여도 필경 이별이 있는 바, 비유컨대 새들이 숲속에서 자다가 명이 다하면 가는 길이 다른 것과 같이 이것도 허망한 꿈속의 일입니다.

바로 말하자면 도를 닦아 나고 죽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짐승들이 새끼를 키운 뒤에 다른 적이 잡아먹는 폭이 되니, 어리석은 인정이 생겨서 걱정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어도 일시일 뿐 결국은 역시 허망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르게 살려면 참선공부를 하여 본래면목을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야 됩니다.

아무쪼록 세상만사 꿈과 같이 생각하여 지혜 방편을 잘 써서 한 세상 안 나온 쪽 잡고, 죽은 쪽 잡고 거짓으로 멋진 연극배우가 되어 남을 도와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어리석은 중은 정처 없는 구름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생활하기를 좋아하여 해인사 원당암을 언제 떠나서 만행을 할지,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런지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니 시간을 아껴서 인정에 따달라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념으로 정진하기를 축원하며 지극히 빌고 비나이다. 이만 줄이오.>

<계속>

성철의 권유로 해국은 제주도에 남국선원 지어

해암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새로 생긴 선방 찾아 격려

기력이 없어도 법문할 때에는 카랑카랑 힘이 넘쳐

남국선원 선방에 좀 앉아 보고 가야겠어.”

해암은 선방에 앉아서 선객들과 신도들에게 인사를 받았다. 그런 뒤 법문을 시작했다.

“뭐니 뭐니해도 참선밖에 없어. 참선이 제일이여. 내가 나를 모르고 하는 일은 모두가 꿈속 일이다.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어째서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잠들 들어 봐. 관상불여복상(觀相不如腹相)이요, 복상불여배상(腹相不如背相)이요, 배상불여심상(背相不如心相)이라 했다. 관상이 제 아무리 잘 생겨도 배 잘 생긴 놈한테는 안 된다는 것이여. 여기서 말 하는 배는 타는 배가 아니고 배때기라고 하는 이 배 말이여. 배가 아무리 잘 생겨도 등, 등허리 잘 생긴 놈한테는 못 당해. 관상 중에는 등이 제일이여. 그러나 관상이든 배든 등이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상법(相法)이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잘 쓰는 놈한

오, 이렇게 손으로 자꾸 계속해서 비비면 뜨거운 열이 나지만 한두 번 비비고 좀 쉬었다가 또 비비고 하면 열이 나지 않는 것과 이치가 똑같아요. 이 공부가 헛것은 아닌데 여러분은 공부를 했다가 안 했다, 이러니까 이 공부가 헛인지 모르고 맛을 못 보게 되는 거요. 해봐도 별 수 없더라,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돼요. 도를 닦다가 보면 언젠지 모르게 참말로 안 닦고는 배길 수가 없는 환경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기연(機緣)이라고 해요.

기연이 도래하면 막 힘도 들지 않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공부가 해져버려요. 그냥 물러나지만 않으면 성인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된다고 물러 나갈 생각은 하지 마시오.

공부해보지만 한 가지도 재미없어 할 것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그때에도 그대로만 해가면 저꾸 달라져요.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응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복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태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워 내두려야
영기가 내려와도 수지를 말지어다.
불꽃이 나타날 때 그해가 도리어야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대종사 법어 -